나라현・중국과 관련이 깊은 곳 소개

제 6 탄　야쿠시지 절

올해는 나라현과 중국 산시성(섬서성)이 2011 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나라현 내에 있는 중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 특히 산시성과 연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제 6 탄에서는 나라시 니시노쿄에 있는 야쿠시지 절을 소개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야쿠시지(薬師寺) 절은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파인 법상종 대본산의 하나로, 남쪽의 '하쿠호(白鳳) 가람'과 북쪽의 '겐조산조인(玄奘三蔵院) 가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보인 동탑(東塔) 등이 있는 남쪽의 '하쿠호 가람'이 유명하지만, 이번에는 북쪽의 '겐조산조인(현장삼장원) 가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겐조산조인 가람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의 모델로 잘 알려진 현장삼장(玄奘三蔵;602 ~664 년)과 관련이 깊은 장소입니다.

원래 법상종은 현장삼장의 제자인 당나라의 자은대사(632~682 년)가 창시한 종파로, 653 년에 당나라에 가서 현장삼장을 스승으로 모신 도소(629~700 년)를 비롯하여 당나라에서 유학한 승려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현장삼장은 17 년에 이르는 인도 날란다 사원으로의 구법※의 길을 거쳐 많은 경전을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야쿠시지 절에는 현장삼장의 유덕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1991 년에 '겐조산조인 가람'이 건립되었으며, 그 중앙에 있는 현장탑에는 현장삼장의 유골을 안치하여 현장삼장역경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나 깨달음의 길을 구하는 것

대안탑 옆 현장삼장 동상
사진제공 : 중국주오사카관광대표처

또한, 현장탑 북쪽에 있는 '대당서역벽화전'에는 히라야마 이쿠오 화백이 약 20 년에 걸쳐 약 4,000 장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제작한 '대당서역벽화'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7 장면 13 벽면, 전장 49m의 벽면에 현장삼장의 여행의 출발지인 장안에서 목적지인 날란다까지의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에는 현장삼장이 날란다에서 가지고 돌아온 경전의 번역을 행한 자은사(산시성 시안시)의 대안탑도 그려져 있습니다. 나라현에서 모국의 대안탑 그림을 볼 수 있을 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람과 동시에 나라와 산시성의 인연이 깊음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라현 국제교류원　오춘란)

현장탑
사진제공 : 야쿠시지

대당서역벽화(히라야마 이쿠오 작품)
사진제공 : 야쿠시지